[UCI]I804:24011-200000234819

2005년 8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백석 · 이용악 시의 비교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임 선 미

백석 · 이용악 시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Baek Seok's and
Lee Yong-ak's Poetry

2005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임 선 미

백석 · 이용악 시의 비교 연구

지도교수 백 수 인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5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임 선 미

임선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韓決根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수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백수인 인

2005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i

Ⅰ. 서 론 1
1. 연구 목적과 방법 1
2. 연구사 검토 4

Ⅱ. 본 론 6
1. 고향 정서의 시적 공간 6
1) 화합과 속신(俗信)에 대한 그리움 - 백 석 7
2) 가난의 고통과 슬픔 - 이용악 15
2. 가족 상실과 유랑 체험 21
1) 내면의 고독과 낭만- 백 석 22
2) 외부의 참담함과 고달픔- 이용악 29
3. 시대적 현실 인식 보기 35
1) 소극적 자긍- 백 석 36
2) 적극적 현실 인식- 이용악 43

Ⅲ. 결 론 54

참고문헌 57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Baek Seok's and Lee Yong-ak's Poetry

Lim Sun mi

Advisor : Prof. Baek Soo in, Ph.D.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Baek Seok and Lee Yong-ak are poets who showed literary activities in late 1930s and before and after the Liberation. As they were kidnapped to the North Korea and lived there, they were hidden behind the history of literature. However there were a few studies on them after the lifting of the ban.

This study will provide a good chance to identify how reality of the North area was at the end of Japanese imperialism through comparison of description on loss of their home and recognitions on reality between the two poets.

Baek Seok and Lee Yong-ak have very different aspects although they have a few things in common such as public presentation of their works at the same period. Baek was born in Pyunganbukdo and Lee was born in Hamgyongbukdo. They present their poetic emotions of hometowns outstandingly. However, Baek represents his home through missing while Lee represents his home through sorrow. The former focuses on his childhood, that is, the past at his home, but Lee focuses on reality of

colonized country.

Also, the two poets present common experiences such as wandering away from their homes in their poetry. So, their representations on missing and loss of families and hometown are revealed here and there. In spite of their same experiences such as feeling of loss and wandering, they express their feelings in different subjects and ways. Baek consoles his loneliness and difficulty through romance while Lee represents tiredness of wandering fully.

Finally, Baek and Lee show different attitudes to recognition of reality though they see tragedies of the public during wandering in the same angle. Baek describes tough reality of the people as an observer and he thinks it can be overcome with his own pride, but Lee presents active recognition on reality in his poetry that reality of colonization can be overcome.

Baek and Lee represent abundance of hometown, an archetypal property and tragedy of reality based on native emotion in harsh reality of colonized country connected with cold weather of the North area, and expands their objects beyond personal tragedy to life of the public. Their recognitions on reality are opposite: negative and positive in their poetry. The two poets work as mirrors to reflect reality of the time and life of the public. So,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comparative studies on them and other authors of the North who describe reality of the North are necessary.

Ⅰ. 서 론

1. 연구 목적과 방법

1930년대 후반은 일제의 무단 통치가 강압적으로 전개된 암흑기라 할 수 있다. 당시 일제의 극심한 수탈로 인해 식민지의 환경은 궁핍하고 황폐해져 근원적 모체(母體)와도 같은 고향의 터전과 가족을 두고 만주나 연해주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당시 문단의 많은 작가들은 이러한 고향의 상실을 폭넓게 다루고 있었다. 특히 백석(白石)[1]과 이용악(李庸岳)[2]은 북방을 배경으로 고향 상실을 작품에 그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여러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이 두 시인을 대상으로 고향 정서와 현실 인식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출생한 백석과 함경북도 경성군에서 태어난 이용악 두 시인은 모두 북방의 고향 정서를 시 속에 탁월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들은 1935년 같은 시기에 등단[3]하여 30년대 후반기에서 해방 전후에 이르기까지 북방의 삶과 현실을 보여준다. 두 시인은 북방의 정서를 동일하게 담아내고 있지만 그 양상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백석의 경우는 평북 특유의

---

1) 백석은 1912년 평북 정주에서 백용삼(白龍三)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본명은 백기행(白夔行)이다. 아버지는 『조선일보』 사진반장을 지냈고, 『조선일보』 후원으로 일본 유학, 도쿄의 아오야마 학원 영문과에 입학하여 1934년 졸업 귀국한다. 1934년 조선일보사에 입사하여 2년간 근무하고 함흥 영생고보 교원으로 일하였다. 1936년 시집 『사슴』을 간행했고, 1938년 교원직을 사임한다. 다시 조선일보사에서 일하다 1939년 만주의 신경(新京)으로 거처를 옮긴다. 1945년 만주국 안동(安東)에서 광복과 함께 귀국. 고향인 평북 정주로 돌아와 떠나지 않았다..

2) 이용악은 1914년 함북 경성에서 이석준(李錫俊)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고, 집안은 누대에 걸쳐 상업에 종사하였다. 할아버지 대에 금을 얻기 위해 소금을 싣고 러시아 영토로 밀무역을 함. 1928년 함북 부안 보통학교를 졸업. 1932년 일본으로 유학하여 히로시마 興文中學에 편입. 39년 죠지대학(上智大學) 신문학과 졸업. 귀국하여 『인문평론』 기자로 일하였다. 시집으로 『분수령』(1937), 『낡은집』(1938), 『오랑캐꽃』(1947), 『이용악집』(1949)을 간행. 이후 남한에서의 작품활동을 접고 1952년 월북하였다.

3) 백석- 1935년 8월, 단편소설 「마을의 遺話」, 「닭을 채인 이야기」 등 2편과 시 「정주성」, 「산지」 등을 『조선일보』와 『조광』지에 발표하여 문단에 등장하였다.
이용악- 1935년 3월, 일본 유학 중 『신인문학』 3월호에 시 「패배자의 소원」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왔다.
(이은봉, 「1930년대 후기시의 현실인식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논문,1992, 78쪽, 86쪽.)

토속적인 유년기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는 반면, 이용악의 시는 고향에서의 가혹한 가난과 노동 체험을 성년의 눈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두 시인은 생애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는데, 백석과 이용악은 학업 과정에서 일본 유학의 과정을 거친다. 백석의 경우 일본 유학 후에 문단에 등장하였고, 이용악은 일본 유학 중에 문단에 등장하여 두 시인 모두 1930년대 후반과 해방기에 시작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그러나 태어난 가정 형편은 차이가 있어 백석은 중류층, 이용악은 하류층 가정에서 생활하여 고향 공간에서 느끼는 시적 정서에 차이를 보인다.

그뿐 아니라 두 시인 모두 유랑의 과정 속에서 상실의 고독과 비애를 느끼고 있지만 이를 인식하고 이겨내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다. 백석이 유랑의 고독 속에서도 낭만적 정서를 찾는다면, 이용악은 유랑의 고달픔 속에 지쳐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낸다. 또한 유랑의 과정 중에 보게 된 민중들의 비극적 모습을 그리는 것은 동일하나 그 현실을 인식하는 태도에 있어서 차이를 드러낸다. 즉, 백석은 민중의 현실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관찰자적인 소극적 면모를 보이는데 반해, 이용악은 보다 적극적인 역사의식으로 당대 현실을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닌 백석과 이용악은 월북(越北) 및 재북(在北) 시인이라는 이유로 우리 문학사 뒤편에 가려져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두 시인의 고향정서와 상실 및 현실 인식을 비교해 봄으로써 식민지 치하의 북방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30년대 후반기 시사의 한 부분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작가의 전기적 삶에 기초하여 시대적 배경과 작품의 상호 관련성을 통해 살필 것이다. 왜냐하면 시인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은 시의 해석에 있어 서로 의미망을 형성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먼저 백석과 이용악의 '고향 정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창작자의 전기적 삶을 중심으로 정서적 특질을 구명할 것이다. 이는 이들의 시 속에 각자의 출신 지역인 평북과 함북 지방의 정서가 토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백석과 이용악의 '유랑 체험 및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가족과의 이별을 다룬 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인 배경과 관련한 작품 분석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또한 당시의 시대 상황과 결부시켜 살펴봄으로써 두 시인의 비극적 유랑 체험과 현실의 연관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백석과 이용악의 '시대적 현실 인식'의 차이를 살피는 데 있어서 민중 현실에 초점을 두고 식민지 치하의 상황을 파악하여 두 시인의 태도의 차이를 알아 볼 것이다.

기본 텍스트는 백석의 경우『조선일보』에 발표한 <정주성>을 시작으로 하여 1936년에 출판된 유일한 시집 『사슴』에 실린 시편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이용악은『신인문학』에 발표한 <패배자의 소원>을 시작으로 하여 시집 『분수령』(1937),『낡은집』(1938),『오랑캐꽃』(1947),『이용악집』(1949) 네 권에 실린 시편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두 시인의 시 세계 전반에서 보여주는 변모 양상을 연구하는 것이 아닌 만큼 작품 전반을 다루지는 않는다. 두 시인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북방 시인의 고향 정서와 식민지 치하에서의 유랑 체험 및 현실 인식을 비교 검토하려 한다.

2. 연구사 검토

백석과 이용악 두 시인에 대한 연구는 해금 조치(1988년) 이후 80년대 후반에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30년대 후반기 시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이루어진 백석과 이용악을 비교하는 연구는 최근 90년대에 들어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정렬은 백석과 이용악의 시에 나타나는 '공간'을 살펴보면서 그들 시에 나타나는 공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고찰하였다. 그는 백석 시의 공간을 신화적 공간, 타향의 공간, 자아 성찰의 공간으로, 이용악 시에서는 궁핍한 공간, 유랑의 공간, 지향의 공간으로 살폈다. 일제 강점기 현실 공간을 두 시인은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 그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고 말한다.[4)]

이은봉은 1930년대 후반기 현실인식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보였는데, 백석과 이용악, 오장환을 중심으로 살핀다. 이 세 시인의 근대지향의 자아와 모더니즘 세계, 그리고 상실의식과 유랑의 세계를 비교 검토하면서 현실지향의 자아와 리얼리즘의 세계까지 다양한 시각으로 살피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5)]

허병두는 백석과 이용악이 다양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시적 상상력에 있어 보이는 상이점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백석의 시적 상상력을 유년의 눈과 낭만적 상상력으로 파악하고, 이용악의 시적 상상력을 성년의 눈과 현실적 상상력으로 파악하여 살피고 있다.[6)]

김순옥은 두 시인이 지닌 시의식을 고향의식과 서사 지향성, 현실 대응의식으로 대별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백석과 이용악 두 시인이 지닌 공통적인 시의식을 추출하고, 그 차이점을 살피는데 주력하였다.[7)]

방연정은 1930년대 후반 시에서 보이는 표현방법과 구조적 특성을 연구하는데, 백석과 이용악, 이찬을 중심으로 살핀다. 이 세 시인은 식민지 현실과

---

4) 장정렬, 「백석과 이용악 시의 공간 연구」,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1991.
5) 이은봉, 「1930년대 후기시의 현실인식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1992.
6) 허병두, 「백석과 이용악의 시적 상상력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3.
7) 김순옥, 「이용악· 백석의 시의식 대비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고통받는 인간들의 삶을 생생하고도 생동감 있게 그려낸다고 말하면서 1930년대 후반 시의 언어 표현이 현대화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구조적 특성과 현실 인식 면을 비교 검토하면서 종합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8]

문호성은 백석과 이용악의 텍스트성 연구[9]에 주안점을 두었고, 강순기는 두 시인의 통사구조를 비교 검토[10]하면서 문학 내재적 측면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백석·이용악 시의 비교 연구는 1930년대 후반기 시사를 바로 세우는 데 노력해 왔다. 그러나 두 시인이 근원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고향 정서에 대해서는 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현실 상황과 연관지어 당시 유이민 현실이 시속에 어떻게 나타나있는지 살피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백석과 이용악 두 시인의 고향 정서와 상실의식의 비교 검토를 통해 1930년대 후반기 북방의 시인들이 담아내려는 고향의 정서와 근원지를 상실한 식민지 하의 유이민 현실이 작품에 구현된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Ⅱ. 본 론

'고향'은 인간이 자신의 본질에 가장 근원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장소

8) 방연정, 「1930년대 후반 시의 표현방법과 구조적 특성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2000.
9) 문호성, 「백석· 이용악 시의 텍스트성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99.
10) 강순기, 「이용악· 백석 비교연구: 통사구조를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로, 시간적으로는 과거 속에 존재하지만 늘 살아 숨쉬는 과거로 인간의 내면에 깊게 자리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고향에 대한 경험이나 생각이 일으키는 정제되고 밀도 높은 감정을 가리켜 '고향 정서'라 정의할 수 있다. 일제강점 하의 북방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백석과 이용악은 각자의 고향 정서를 시 속에 드러내면서 당시의 암울한 현실을 보이고 있다. 평북 정주 태생인 백석은 유년기의 고향을 토착어에 담아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시적 언어로 표현하고, 함북 경성이 고향인 이용악은 가난과 노동의 체험으로 물든 식민지 하의 안타까운 현실을 북방의 언어로 담담하게 그려낸다. 두 시인 모두 지역적 특성이 담긴 토착어를 사용하여 북방의 고향 정서를 개성적으로 표출한다.

1. 고향 정서의 시적 공간

백석과 이용악은 자신의 고향을 시적 공간에 담음으로써 당시 북방의 민족 정서를 형상화한다. 두 시인 개인의 전기적 삶의 양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시인이 드러내는 시적 공간은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백석은『조선일보』사진반장을 지낸 아버지 아래 중류 계층의 개화적 집안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11] 이는 그가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한다. 그의 시에서 고향에 관한 정서는 화합과 속신(俗信)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유년의 고향을 회상하며 정신적으로 풍요로웠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시인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비해 이용악은 누대에 걸쳐 상업에 종사했는데, 할아버지 대부터 아버지 대까지 금을 얻기 위해 소달구지에 소금을 싣고 러시아 영토를 넘나들며 밀무역을 했다[12]고 전한다. 백석에 비해 이용악은 가난과 궁핍의 경험이

11) 이동순, 「백석 연보」,『백석시전집』,창작사, 1987, 179~180쪽.

짙었고, 이로 인해 고향 정서는 비참한 현실 체험에서 비롯된 '슬픔과 고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두 시인은 지역적으로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시적 공간에 이끌어낸 고향 정서는 사뭇 달랐다.

1) 화합과 속신(俗信)에 대한 그리움- 백 석

백석은 고향 풍경과 정서를 유년기의 토속적인 산골마을을 무대로 그려낸다. 이 세계는 근본적으로 끈끈한 유대감으로 얽힌 공동사회이며, 우리 민족이 살아온 원형적 공간으로서 의미화 되어 있다. 당시 식민지의 현실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렸고 풍요로운 화합의 삶이 아닌 피지배 민중으로서의 삶을 강요했다. 그러나 백석의 시는 우리 민족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던 과거의 공간을 그려내고 있으며, 공동체적 연대감을 형상화하여 누구나 지니고 있을 법한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민담, 전설로 내려오는 속신(俗信)을 시에 담아 샤머니즘적 공간을 그려낸다.

먼저 백석이 고향 정서로 담아내고 있는 화합의 세계는 공동체적 연대감을 주된 정조로 하고 있다.

> 명절날나는 엄매아베따라 우리집개는 나를따라 진할머니 진할아버지가 있는 큰집으로 가면
>
> 얼굴에별자국이솜솜난 말수와같이눈도껌벅걸이는 하로에베한필을짠다는 벌하나건너집엔 복숭아나무가많은 신리(新里)고무 고무의딸이녀(李女) 작은이녀(李女)
>
> 열여섯에 사십(四十)이넘은홀아비의후처(後妻)가된 포족족하니성이잘나는 살빛이매감탕같은입술과 젖꼭지는더깜은 예수쟁이마을가까이사는 토산(土山)고무 고

12) 윤영천,「이용악시전집」, 창작과 비평사, 1988.
이수형, 「용악과 용악의 예술에 대하여」, 『이용악집』, 동지사, 1949, 160쪽.
-"이용악은 아비 어미의 등곬에서 시달리며 국경 넘어 우라지오 바다며 아라사 벌판으로 마차를 달려 갔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무의딸승녀(承女) 아들승(承)동이

육십리(六十里)라고해서 파랗게뵈이는산을넘어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된 코끝이 빨안 언제나흰옷이정하든 말끝에설게 눈물을짤때가많은 큰골고무 고무의딸홍녀(洪女) 아들홍(洪)동이 작은홍(洪)동이

배나무접을잘하는 주정을하면 토방돌을뽑는 오리치를잘놓는 먼섬에 반디젓담그려가기를좋아하는삼춘 삼춘엄매 사춘누이 사춘동생들

(중 략)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은 오양간섶 밭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숨굴막질을하고 꼬리잡이를하고 가마타고 시집가는놀음 말타고 장가가는놀음을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밤이깊어가는집안엔 엄매는엄매들끼리 아르간에서들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웋간한방을잡고 조아질하고 쌈방이굴리고 바리깨 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하고 이렇게화디의사기방등에 심지를 멫번이나독구고 홍게닭이 멫번이나울어서 조름이오면 아릇목싸움 자리싸움을하며 히드득거리다 잠이든다 그래서는 문창에 텅납새의그림자가치는아츰 시누이동세들이 욱적하니 홍성거리는 부엌으론 샛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이징게국을 그리는 맛있는내음새가 올라오도록잔다.

-<여우난곬족> 부분-

이 시에서는 전통적인 풍속인 명절날에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인물을 살펴보면 “신리 고무”는 “얼굴에별자국이솜솜난” 곰보 흠집을 지니고 있고, 말하면서 “눈도껌벅걸이는” 버릇이 있다. “토산고무”는 나이 많은 홀아비의 후처가 되었다는 배경과 “성이잘나는 살빛이매감탕같은 입술”을 지녀 성도 잘 내는 이로 연상된다. 또한 “큰곬고무”는 “해변에서 과부가된” 인물이며 “말끝에설게 눈물을짤때가 많은”것으로 보아 설움도 있고 인정도 있는 여인으로 묘사된다. 마지막으로 묘사된 “삼춘”은 배나무접을 잘 하는데 술이 취하면 “토방돌을뽑는” 주정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친척들은 모두 가난과 슬픔이 배어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명절날 한데 모인 자리에서만큼은 밤이 늦도록 이야기하며 어른들과 아이들 모두 풍요로운 시간을 보낸다. 백석은 이러한 평범하지만 애환을 지닌 여러 인물들을 한 자리에 모음으로써 고향의 공동체적인 화합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 민족 고유의 공동체 의식이 명절 풍속을 통해 나타나 있고, 이러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백석 자신의 정서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쪽도 짚검불도 가락닢도 머리카락도 헌겊조각도 막
대꼬치도 기와장도 닭의짖도 개털억도 타는 모닥불

재당도 초시도 문장(門長)늙은이도 더부살이아이도 새사위
도 갓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
사도 땜쟁이도 큰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모닥불은 어려서우리할아버지가 어미아비없는 서러
운아이로 불상하니도 몽둥발이가된 슳븐력사가 있다

-「모닥불」 부분-

짧은 3연에 많은 것들을 나열한 듯 보이는 이 시는 농촌 공동체적 정서를 담아 합일의 경지까지 보여주는 새로움이 있다. 1연에서 보이는 '헌신짝', '소똥', '갓신창', '개니빠디', '너울쪽', '짚검불', '머리카락', '헌겊조각', '막대꼬치', '기와장', '개털억'은 모두 일상 생활에서 볼 수 있는 하찮은 개체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함께 타올라 모닥불을 만들어내고, 2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모닥불을 한자리에서 불을 쬔다는 것이다. 2연에서도 열거의 방식으로 '재당', '초시', '문장늙은이', '더부살이 아이', '새사위', '갓사둔', '나그네', '주인', '할아

버지', '손자', '붓장사', '땜쟁이', '큰개', '강아지'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계층의 구분 없이 '-도'라는 보조사로 연결되어 모닥불을 쬐는 모두가 평등함을 일러준다. 마지막 3연에서는 '모닥불'이 가진 "슳븐력사"를 말해주는데 이는 "어미 아비없는 서러운아이로" 할아버지가 살아오면서 "몽둥발이"가 된 비극적 현실이다. 이는 단순히 화자의 할아버지로 국한되지 않음을 "우리"라는 시어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는 구별의식이 소멸된 개념으로 "슳븐력사"의 현실은 할아버지 세대의 공통된 비극이었음을 알게 한다. 이 시는 '모닥불'이라는 평등하고 합일된 공간을 통해 전체 3연의 문맥 속에 공동체적 화합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화합의 세계는 <연자간>과 <북신(北新)>에도 나타난다. 이 작품들에서는 <모닥불>의 3연에서 보이는 비극적 정서는 드러나 있지 않고, 활기있고 편안한 노동의 모습과 정감이 느껴진다.

송아지 잘도 놀고
까치 보해 짖고

신영길 말이 울고 가고
장돌림 당나귀도 울고 가고

대들보 우에 베틀도 채일도 토리개도 모도들 편안하니
구석구석 후치도 보십도 소시랑도 모도들 편안하니

- <연자간>부분-

국수집에는 농짝가튼 도야지를 잡어걸고 국수에
치는 도야지고기는 돗바늘가튼 털이 드문드문 백였다

나는 이 털도 안뽑은 도야지고기를 물구럼이 바라보며
또 털도 안뽑은 고기를 시껌은 맨모밀 국수에

언저서 한입에 꿀꺽 삼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가슴에 뜨껀한 것을 느끼며
小獸林王을 생각한다 廣開土大王을 생각한다

-<북신(北新)>부분-

<연자간>은 연자방앗간 내부 광경을 묘사한 것으로 '송아지', '까치', '신영길말', '장돌림 당나귀', '베틀', '채일', '토리개', '후치', '보십', '소시랑' 등의 동물과 사물들의 안락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들에게서는 노동과 가난의 힘듦은 찾아볼 수 없고, 연자간이라는 공간 속에 합일되는 화합의 세계를 느낄 수 있다.

<북신(北新)>에서는 농촌 공동체를 그리고 있지는 않지만 고구려인들의 야성과 원시적인 식생활이 그려져 있다. "털도 안뽑은 도야지고기"와 "시껌은 맨모밀국수"를 먹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적 화자는 그들과의 유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가슴에 뜨껀한 것을 느끼며" 생각하는 소수림왕과 광개토대왕은 화자의 자랑스런 조상이고 이들의 강건함과 기상은 화합의 세계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렇게 백석이 그려낸 화합의 세계는 끈끈한 유대감을 지닌 농촌 공동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고향의 재현은 단순히 고향의 풍경과 정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현실로부터 벗어나 회복하고자 하는 백석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인의 의지는 화합의 세계뿐만 아니라 속신(俗信)의 세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속신(俗信)의 세계는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민담과 전설 속에 담겨있다. 이는 단순히 이야기에 그치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당시 민중의 삶을 투영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 민간의 습관이나 생활 속에 흡수된 일종의 생활양식인 이 샤머니즘[13]의 세계는 귀신사상이나 무격사상 등을 그 예로 들

13) 샤머니즘이란 인간중심사상의 한 반영이면서 개인보다는 공동체의식 속에서 존재 의미를 강조

수 있다. 백석은 이러한 속신(俗信)의 세계를 통해 고향을 재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년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승냥이가새끼를치는 전에는쇠메듦도적이났다는
가즈랑고개

가즈랑집은 고개밑의
山넘어마을서 도야지를 잃느밤 즘생을쫓는 깽제미소리가 무서웁게 들려 오는집
닭개즘생을 못놓는
멧도야지와 이웃사촌을지나는집

예순이넘은 아들없는가즈랑집할머니는 중같이 정해서 할머니가 마을을 가면 긴담배대에 독하다는막써레기를 멫대라도 붙이라고하며

간밤엔 셤돌아래 승냥이가왔었다는이야기
어느메山곬에선간 곰이 아이를본다는이야기

나는 돌나무김치에 백설기를먹으며
녯말의구신집에있는 듯이
가즈랑집할머니
내가날때 죽는누이도날 때
무명필에 이름을써서 백지달어서 구신간시렁의 당즈깨에넣어 대감님께 수영을 들였다는 가즈랑집할머니
언제나병을 앓을때면
신장님단련이라고하는 가즈랑집할머니
구신의딸이라고생각하면 슳버졌다.

하는 것이다.
-박용식, 『한국설화의 원시가교사상연구』, 일지사, 1987, 7쪽.

토끼도살이올은다는때 아르대즈퍼리에서
제비꼬치 마타리 쇠조지 가지취 고비 고사리 두릅슨 화순 산나물을하는
가즈랑집할머니를딸으며
나는벌서 달디단물구지우림 둥굴내우림을 생각하고
아직멀은 도토리묵 도토리범벅까지도 그리워진다.

-<가즈랑집>부분-

고형진은 이 시의 '가즈랑'이라는 고유명사에서 꼬불꼬불한 고개와 카랑카랑하고 강인한 할머니를 연상시킬 수 있다[14]"고 말한다. 그만큼 이 시에 등장하는 '가즈랑집 할머니'는 우리 민족의 전형성을 가진 인물이며 무속신앙에 바탕을 둔 농경사회의 생활상을 반영해 준다.

가즈랑집은 가즈랑 고개에 위치해 있어 불리는 이름으로 집 주위의 배경을 "승냥이가 새끼를 치는 전에는 쇠메 든 도적이 났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산골 깊숙한 곳에 살아가는 가즈랑집 할머니는 "예순이 넘은 아들 없는" 외로운 처지이며, "긴 담배대에 독하다는 막써레기를 멫대라도 붓이라고"하는 강인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산골 분위기와 할머니의 인상을 말하는 아이는 "깽제미소리가 무서웁게 들려오는 집"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할머니에게서 "섬돌아래 승냥이가 왔었다는 이야기", "산골에서 곰이 아이를 본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이는 전설과 속신, 그리고 현실의 세계를 조화시켜 샤머니즘 색채를 통한 민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귀신의 딸', 즉 무녀(巫女)의 삶을 살아가는 가즈랑집 할머니를 묘사하며 시 초반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조성되지만 6연 이후부터는 할머니를 애틋하게 따르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준다. 티없이 맑은 유년의 아이가 가즈랑집 할머니에게서 느끼는 애정이 샤머니즘이라는 귀신사상, 무격사상과 조화되어 속신(俗信)의 세계 뿐 아니라 인

14) 고형진 편, 「백 석」, 『새미작가론총서4』, 새미, 1996, 48쪽.
-고형진, 「백석시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3.

간미 있는 세계까지 보여주고 있다.

나는 겨우 대문을 삐쳐나 밖알으로 나와서
밭 마당귀 연자간 앞을 지나가는데 연자간에는 또 연자망구신
나는 고만 디겁을 하여 큰 행길로 나서서
마음 놓고 화리서리 걸어가다 보니
아아 말 마라 내 발뒤축에는 오나가나 묻어 다니는 달걀구신
마을은 온데간데 구신이 돼서 나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부분-

벌개늪녘에서 바리깨를뚜드리는 쇠ㅅ소리가 나면
누가눈을앓어서 부증이나서 찰거마리를 불으는 것이다
마을에서는 피성한눈슭에 절인팔다리를 거마리를 붙인다

여우가 우는밤이면
잠없는 노친네들은일어나 팥을 깔이며 방요를 한다
여우가 주둥이를향하고 우는집에서는 다음날 으레히 흉사가있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오금덩이라는 곳>부분-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에는 '성주님', '더운 구신', '조앙님', '데석님', '굴대장군', '털능구신', '수문장', '연자망구신', '달걀구신'과 같은 농촌 공동체 의식 속에 있는 갖가지 무속신앙이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사물 곳곳에 혼령이 실려 있다는 애니미즘적 사고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마을이 온데 간데 구신이 돼서 나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화자인 유년의 아이가 생활해 온 민간의 오랜 습관에서 형성된 것이다.

<오금덩이라는 곳>에서 '오금덩이'라는 마을은 전형적인 속신의 세계가 살아있는 공간이다. 부증이 난 사람에게 찰거머리를 붙이고 피가 성한 눈이나

저린 팔다리에 거미를 붙이는 처방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마지막 연에서 "여우가 주둥이를 향하고 우는 집에서는 흉사가 있다"는 속신을 믿고 있어 전근대적인 방식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이다. 이를 통해 화자는 민간의 전통으로 여겨진 속신에 대한 믿음을 작품 속에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이렇게 백석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토대로 화합의 세계와 속신의 세계를 그려냈다. 유년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세계는 민중의 원형적인 삶의 공간의 모습을 제시해 준다. 이는 공동체적 정서와 전통이 살아있는 고향 공간으로 현재의 식민지 상황과 대립되는 과거의 모습이다. 백석의 이러한 시적 양상을 통해 당대 식민지 현실 속에 근본적으로 잃어버린 자아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2) 가난의 고통과 슬픔- 이용악

이용악은 백석과 동일한 식민지 현실을 살았지만 고향 정서와 시적 공간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소금 밀무역을 했던 부모와 함께 '우라지오' 바다며 '아라사' 벌판으로 다녔던 이용악의 시에는 자신의 상황을 담은 가난과 궁핍의 체험이 짙게 나타나 있다.

그러기에 이용악의 시는 과거의 전통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린 백석과 달리 현실의 비극적 체험에서 비롯된 '슬픔과 고통'을 담고 있다. 고향의 극심한 가난과 황폐한 현실은 그에게 슬픔과 탈출 의지를 동시에 갖게 했고 이는 시적 공간 속에 현실을 거부하는 정서로 나타난다.

도망하고 싶던 너의아들
가슴 한구석이 늘 차그웠길래
고향아
돼지굴같은 방 등잔불은
밤마다 밤새도록 꺼지고싶지 않었지

드디어 나는 떠나고야 말았다
곧 얼음 녹아내려도 잔디풀 푸르기 전
마음의 불꽃을 거느리고
멀리로 낯선 곳으로 갔더니라

-(중　　략)-

나는 그리워서 모두 그리워
먼 길을 돌아왔다만
버들방천에도 가고 싶지 않고
물방앗간도 보고 싶지 않고
고향아
가슴에 가로누운 가시덤불
돌아온 마음에 싸늘한 바람이 분다.

이 며츨을 미칠 듯이 살아온 내게
다시 너의 품을 떠날려는 내 귀에
한마디 아까운 말도 속사기지 말어다오
내겐 한 걸음 앞이 보이지 않는
슬픔이 물결친다

하얀 것도 붉은 것도
너의 아들 가슴엔 피지못했다
고향아
꽃은 피지못했다

-<고향아 꽃은 피지 못하였다>부분-

위의 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화자에게 고향은 그리움의 대상인 동시에 가

난하고 비참한 현실을 차마 볼 수 없어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새기게 하는 공간이었다. 전체적으로 떠남과 돌아옴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향과 타향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정신적 슬픔과 갈등이 드러난다. 가난으로 찌든 "돼지굴같은 방"에서 "가슴 한구석이 늘 차그웠길래" 도망하고 싶던 마음을 누를 수 없고, 결국에는 "마음의 불꽃을 거느리고" "드듸어 나는 떠나고야 말았다"고 화자는 토로한다. 그리하여 "나는 그리워서" 먼 길을 돌아왔지만 "가슴에 가로누운 가시덤불"은 가시지 않는다. 고향에 다시 돌아왔지만 비참한 현실은 다시금 화자를 떠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결국 고향이 어떠한 '꽃'도 피우지 못했다고 절규하는 화자는 타향에서의 고통을 고향에서도 위로 받지 못함으로써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바닷바람이 묘지를 지나
무너지다 남은 城 굽이를 돌아 마을을 지나
바닷바람이 어둠을 헤치고 달린다
밤
등잔불들은 졸음 졸음 눈을 감었다
- (중 략) -

기름기 업는 살림을 보지만 말어도
토실 토실 살이 찔것갓다
뼉다구만 남은 마을……
여기서 생활은 가장 평범(平凡)한 인습(因襲)이엇다

가자
씨원이 떠나 가자
흘러가는 젊음을 따라
바람처럼 떠나자

-<도망하는 밤>부분-

앞서 시인의 실제적 체험을 그린 <고향아 꽃은 피지 못하였다>에서도 보았듯이 이 시 역시 가난에 찌들어 있는 황폐한 고향의 모습을 담고 있다. “기름기 없는 살림을 보지만” 않아도 더 괴롭지 않을 것 같다는 화자는 ”뼉다구만 남은 마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장 평범한 인습”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인습’은 가난이 대물림되는 고향의 현실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로 이미 거주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고향을 나타내고 있다.

현실의 궁핍한 공간에서 시적 화자가 택한 문제 해결 방법은 그 공간에서 떠나는 ‘도망’의 행위이다. 도망하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설정하고 음산한 ‘바닷바람’에 ‘등잔불’이 깜박거린다는 묘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장정렬은 1연의 ‘불’과 ‘바람’이라는 시어에 집중하여 해석한다. ‘불’이란 어두움에 빛을 던져 주며 열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온기와 역동적인 힘을 구축하는 근거로 봤을 때, 이는 ‘바람’과 대립적인 시어가 된다. ‘바람’은 불빛을 위협하는 요소로 온기와 밝음에 대해 적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불빛마저 “눈을 감었다”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열악한 상황임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된다.[15]

결국 화자는 동무에게 황폐한 고향을 떠나가자고 말하는데, 이용악 시에 나타난 이러한 고향의 세계는 삶의 기반이 와해된 현실로 그려진다. 일제 수탈의 현장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 민중의 삶 속에 얽힌 모순의 실상을 고향 정서에 담아 생생히 형상화하고 있다.

노오란 銀杏입 하나
호리 호리 돌아 湖水에 떨어져
소리 업시 湖面을 미끄러진다.
또 하나—

15) 장정렬, 「백석과 이용악 시의 공간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42쪽.

조이삭을 줏던 시름은
요지음 落葉 모으기에 더욱 더
해마알개젓고

하늘
하늘을 처다보는 늙은이 腦裏에는
얼어죽은 친지 그 그리운 모습이
또렷하게 피여 올은다고
길다란 담뱃대의 뽕입 연기를
하소에 돌린다

돌개바람이 멀지안어
어린것들이
털 고운 톡기 썹질을 벳겨
귀걸개를 준비할때

기름진 밧고랑을 가져못본
部落民 사이엔
지난해처럼 또 또 그전해처럼
소룸씨친 對話가 오도도오 떤다

-<晩 秋>전문-

이 시에서 마땅히 어느 계절보다 풍요로워야 할 가을은 화자에게 있어 시름만 쌓여 가는 시기로 형상화되고 있다. 1연에 "노오란 은행잎 하나" 호면에 소리없이 떨어지는 가을 풍경이 제시되어 서정성을 부각시키면서 가을의 궁핍함은 더욱 선명하게 그려진다. 벼가 아닌 "조이삭을 줍는" 마음은 가을걷이가 끝난 후에도 자신들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 없는 공허함일 것이다. 3연에 등장하는 늙은이는 "얼어죽은 친지"를 그리워하며 자신들 또한 궁핍 속에 떨어야 할 날들로 인해 담배를 피워댄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돌개바람은

멀지 않아" 다가올 겨울을 근심한다. "기름진 밭고랑"을 가져보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땅이 없기에 가난과 궁핍 속에 늘 노출되어 있다. 매년 이러한 참상은 "지난해처럼 또 또 그 전 해처럼" 거듭되어 얼어 죽어가는 참상을 "소름끼친 대화"로 이야기하며 떨어야 한다. 빈민 소작층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은 바로 당대의 고향 현실이었고, 이용악은 이를 객관적 어조로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이용악의 시에 나타난 고향 정서는 가난으로 황폐해진 현실로 인한 슬픔과 고통, 황량함과 불모성이라는 거부적 정서로 나타난다. 앞서 살폈던 백석이 유년의 시각으로 돌아가 과거의 전통적 고향을 그렸던 데 반해 이용악은 식민지 현실에서 겪는 비참한 생활상을 북방의 추위와 결합시켜 표현하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두 시인의 고향 공간은 북방의 지역적 특성을 동일하게 담고 있지만 그곳에서 표출하는 고향 정서는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백석은 과거의 전통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용악은 현재의 비극적 고향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시적 공간에 담아내면서 시적 양상의 차이를 보였다.

2. 가족 상실과 유랑 체험

1930년대 후반, 일제는 파시즘 체제를 강화하면서 민족 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가속화했고, 지식인에 대한 사상 통제 또한 철저히 했다.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화를 위해 경찰력과 군사력을 증강하였고 이는 곧 민중에 대한 경제적 수탈과 연결되었다. 또한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공업화 정책을 한층 공고히 하여 자주성을 상실한 파행적 근대화로 치닫게 된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삶의 근원지인 고향을 떠나 일자리를 찾아 도시 등지를 헤매게 되었고 만주, 간도 등지로 이민을 가기에 이르렀다. 생계를 위해 가족 일부를 고향에 두고 타향살이를 해야 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하였다.[16]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향 및 가족 상실의 문제는 문학 작품 일반에 나타나는 식민지 치하의 보편적인 주제였다.[17] 즉, '가족'이라는 동일성을 상실하고 '고향' 공간의 일체감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비극적 현실을 당대 문단 전반에서 다루고 있던 것이다.

백석과 이용악의 시 역시 이러한 식민지 현실의 압박으로 인한 고향 및 가족 상실의 주제를 담아내고 있다. 이들은 북방의 낯선 타향을 유랑하는 생활을 동일하게 겪으면서 개인의 비극적 체험을 시 속에 표현한다. 그러나 유랑의 과정을 대하는 주된 심정이나 태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백석의 시는 타관을 떠도는 과정에서 느끼는 내면의 고독을 주로 드러내면서 이를 낭만적인 고고(孤高)함으로 위로해 보려는 노력이 나타난다. 이에 비해 이용악의 시는 내면 자체의 고독보다는 외부의 상황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죽음을 다루면서 그 참담함을 주로 드러낸다. 또한 이를 위로하기보다는 끝없이 이어지는 유랑으로 인해 고달파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두 시인은 동일한 식민지 현실에서 가족 상실과 유랑의 체험을 겪었지만 시적 공간에 그리고 있는 대상과 유랑에 대응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

16) 이러한 사실은 신문 사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 살지 못할 그들이 근거가 없고 보장이 없는 외지에선들 어찌 그 아름다운 삶을 바랄 수 있으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도 죽음의 길을 취한 자와 다를 바 업시 가련한 자들이지만 외지를 향하야 떠난 자도 죽음을 향하여 떠난 자와 다를 바 업시 가련한 자들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동아일보 1926. 7. 18 『동아일보 사설선집-1』. 594쪽.)

17) 오세영, 「식민지 문학의 상실의식과 낭만주의· 하」, 『현대문학』, 1991. 1월호, 348쪽.

1) 내면의 고독과 낭만- 백 석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백석은 유년기의 시각으로 과거의 고향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고향은 더 이상 안온한 곳이 아니었고, 피폐한 삶으로 농민들은 고향을 버리고 유랑의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제 백석은 과거의 고향이 아닌 현실의 고향을 직접 체험하면서 가족과 이별하고 타관을 떠돌면서 유랑 속에 느끼는 심정을 시 속에 담아내었다.

나는 北關에 혼자 앓아누어서
어늬아침 醫員을 뵈이었다
醫員은 如來같은 상을하고 關公의수염을 들이워서
먼녯적 어늬나라 신선같은데
새끼손톱 길게도은 손을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집드니
문득물어 故鄕이 어데냐한다
平安道 定州라는 곧이라한즉
그렇면 아무개氏 故鄕이란다
그렇면 아무개氏-ㄹ 아는냐한즉
醫員은 빙긋이 우슴을 띄고
莫逆之間이라며 수염을 쓴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이라한즉
醫員은 또다시 넌즛이 웃고
말없이 팔을잡어 맥을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故鄕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고향>전문-

이 시는 '북관'에 혼자 앓아 누운 화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막역지간이라는 의원과 극적인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다. 이 시의 '북관'은 함경남도 함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을 잃고 타향에서 병을 앓는 화자가 의원을 만나 나누는 대화가 극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시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의원의 풍모와 인상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면서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16행과 17행은 화자가 고향을 정신적 차원에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구절로서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고 표현한다. 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통한 회복으로 스스로 위로하는 차원에 머물 수 있지만 가족 및 고향 상실에 대한 회복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오늘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 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샷쯔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늬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조 앉어 대구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늬 사이엔가
이 힌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골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어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어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짬'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힌 바람벽이있어>전문-

이 시는 백석이 거처를 만주로 옮긴 후에 쓴 탄식조의 노래로 화자는 "흰 바람벽"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에 빠져 있다. "좁다란 방"에 누워 "십오 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낼 때 흰 벽을 바라보며 화자는 "늙은 어머니"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다.

화자는 가족을 잃고 타향에서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어가도록 태어났다"고 말한다. 이러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방식은 백석의 시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후기시에서 종종 나타난다. 그러나 감정 노출 뒷면에는 백석이 가진 낭만의 세계가 있는데 이는 쓸쓸함 속에 공존하는 '고고(孤高)함'이다. 시적 화자는 자신을 "외롭고 높고 쓸쓸한" 존재라고 규정하는 한편, 후반부에는 자신과 '초생달',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와 같은 자연물을 동일시한다. 또한 '프랑시스 짬', '도연명', '라이넬·마리아·

릴케' 역시 자신과 같이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고, 하늘이 가장 '귀애하고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한다.

이는 백석이 지닌 낭만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고통스러운 유랑생활을 오히려 아름답고 고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게 한다. 백석은 외로움과 쓸쓸함의 정조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백석은 가족과 고향에 대한 상실의식을 나타내면서 유랑 생활의 고독과 낭만을 표현하고 있다. 유랑의 범위는 영생여고보 교사를 그만둔 1939년부터 시작되어 국내[18] 뿐 아니라 국외까지 매우 폭넓게 펼쳐져 있다. 유랑생활을 시작하여 1945년 해방될 때에 이르기까지 백석은 만주 등지에 기거했고, 만주에서의 체험을 제재로 상실의식과 유랑의 낭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安東>, <수박씨 호박씨>, <북방에서>, <귀농>등의 작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아득한 녯날에 나는 떠났다
부여를 숙신을 여진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함안령을 음산을 아무우르를 숭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중 략)-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야 또 한 아득한 새 녯날이 비롯하는 때

18) 백석의 국내 유랑은 전국토에 걸쳐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상실의식의 세계를 기저로 하고 있는 만주 등지의 국외 유랑시를 다루고자 한다. 국내지역 유랑의 범주는 '여행시초'를 통해 확인된다. 국토의 남단을 여행한 '남행시초', 동북단을 제재로 한 '함주시초', 관서 지역을 중심으로 여행한 '서행시초' 와 같은 것들로 이는 여행 중 체험과 관찰을 중심으로 쓴 연작시이다.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넷한울로 땅으로-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구 보래구름만 혼자 넋없이 떠도는데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北方에서: 鄭玄雄에게>-부분

이 작품은 삽화가이자 친구였던 '정현웅'에게 남기는 글로 화자는 자신이 고향을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 개구리를 속이고 떠났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오랜 유랑 생활 후에 "나의 태반"인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예전의 모습이 없어지고 그리워하던 "조상과 형제 일가 친척", "정다운 이웃"은 사라져 탄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백석이 유년의 눈으로 그렸던 생생한 고향의 재현은 자취를 감추고 암울한 현실 하에 상실 의식이 짙게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9] 앞서 다룬 <힌 바람벽이 있어>처럼 상실의 고독과 유랑의 세계는 드러났으나 이에 대한 낭만적 인식이나 감정 절제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시를 통해 백석의 유랑 생활 과정에서 그리워한 대상이 "조상과 형제 일가 친척"이 모두 한 자리에 있던 공동체적 공간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은 <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해서 아린가슴이 싹기도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한 알에서 가제깨인듯한 발이 채 서지도못한 무척 적은 새

19) 이 시는 상실의식과 유랑의 세계 이후의 비통한 감정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수동적인 태도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고형진, 「백석시 연구」, 앞 책, 67쪽.

끼거미가 이번엔 큰거미없서진곧으로와서 아물걸인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듯하다
내손에 올으기라도하라고 나는손을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어나벌이며 나를서럽게한다
나는 이 작은것을 좋이 보드러운종이에받어 또 문밖으로벌이며
이것의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이것의걱정을하며있다가 쉬이 맞나기나했으면 좋으렸만하고 슳버한다

-<修羅>부분-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작고 사소한 생물에게서 가족 해체 장면을 보고 "가슴이 메이는듯하다"고 말하고 있다. '나'의 잘못으로 거미 하나를 문 밖으로 쓸어버리자 가족일 성싶은 거미들이 연속해서 같은 자리에 나타나 시적 화자를 슬프게 한다. 백석 자신이 가족과 헤어져 타관살이를 하고 있었기에 작고 사소한 미물이지만 거미 가족의 헤어짐은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거미를 보면서 뿔뿔이 흩어진 자신의 가족을 연상하는 이 시는 당시의 현실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며, 거미 가족에 비유하여 드러낸 방식은 독자에게 전이되어 더욱 안타깝게 한다.

오늘은 正月 대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녯날 杜甫나 李白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 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 고향의 내 집에 있는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연만
나는 오늘 때묻은 입든 옷에 마른물고기 한 토막으로
혼자 외로히 앉어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중 략)-

아, 이 正月 대보름 명절인데
거리에는 오독도기 탕탕 터지고 胡弓소리 빨빨 높아서
내 쓸쓸한 마음엔 자꼬 이 나라의 녯 詩人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杜甫나 李白 같은 사람들이 마음인지도 모른다
아모려나 이것은 녯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두보나 이백같이> 부분-

작품 전체적으로 "쓸쓸한"과 "외로히"라는 시어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시적화자가 외로움과 고향 상실감에 빠져 있음을 의미한다. 정월 대보름에 시적화자는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 이 작품 역시 시인이 유랑 생활 속에 느낀 분리감과 상실 의식을 기저로 하고 있다. 고향의 '내 집'에 있었다면 화자는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일가친척'들과 모일 것이지만 화자는 고향을 떠나있는 처지이다. 고향에 있는 상상과는 대조적으로 "때묻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외로히' 앉아 있는 화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비애감에 젖어 있다.

시적 화자는 이러한 고향 상실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보'나 '이백'도 자신처럼 명절을 타향에서 보낸 적이 있다고 스스로 위로한다. 앞서 다룬 <힌 바람벽이 있어>에서도 시적 화자는 자신을 자연과 성인들에 빗대어 등가의 입장에 두고 정신적 차원의 회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낭만적인 위로에도 불구하고 "아모려나 이것은 녯투의 쓸쓸한 마음이다"라고 끝을 맺고 있어 객지에 있는 상실감이 쉽게 걷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백석은 가족 상실 및 유랑 체험을 담은 시에서 가족과 이별한 내면의 '고독'을 주로 담으면서 이를 고고(孤高)한 '낭만'으로 위로해 보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개인적인 외로움이 짙어지면서 백석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노출하는 일면도 보이나 당시의 비극적 상실의 아픔을 개성적인 낭만의 상상력으로 이겨내려는 의지를 보인 점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2) 외부의 참담함과 고달픔- 이용악

이용악 역시 백석과 동일하게 유랑의 과정을 겪으면서 당대의 고향 상실과 가족 상실을 시적 공간에 담아낸다. 백석이 이별한 가족을 그리워하는 내면의 '고독'을 중심으로 그렸던 반면 이용악은 가족과 동무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외부적 상황을 겪으면서 그 '참담함'을 작품 속에 그리고 있다. 또한 유랑 체험에 대응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백석은 고독을 낭만으로 위로해 보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이용악은 유랑의 비극을 의지적인 노력으로 위로하기보다 계속되는 유랑의 고달픔만을 중심으로 그려낸다.

고향을 떠나온 폐허의 유랑지에서 이용악은 가족들과 친척, 동무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했다. 또한 극심한 가난은 고향을 벗어난 유랑의 과정 중에도 이어져 삶을 더욱 고단하게 했다. 이러한 죽음체험과 가난을 통해 이용악은 백석과 동일하게 가족공동체의 파멸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우리집도 안이고
일갓집도 안인 집
고향은 더욱 안인 곳에서
아버지의 寢床 업는 최후 最後의 밤은
풀버렛소리 가득차 있었다

露領을 단이면서까지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한마듸 남겨두는 말도 업섯고

아무을灣의 파선도
설룽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이즈섯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

-<풀버렛소리 가득차 잇섯다>부분-

이 작품은 타지에서 객사한 아버지의 죽음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사실 이외에 개인적인 감정 토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우리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화자의 아버지는 "침상없는 최후의 밤"을 맞이하고 있다. 화자의 아버지와 가족은 낯선 곳에서 유랑 생활을 하며 지냈는데 이는 2연의 '노령', '아무을만', '설룽한 니코리스크의 밤'과 같은 시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생활을 위해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 했던 아버지의 삶을 화자는 마치 시적 청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첫 연과 마지막 연 마무리를 "아버지의 寢床없는 최후 最後의 밤은/풀버렛소리 가득차 있었다"로 반복하여 표현하는데 이는 의미의 강조와 리듬감을 형성한다. 화자 자신의 울음소리는 시속에 전혀 설정하지 않고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만을 배경처럼 삽입시켜 객관적인 어조를 정밀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첫 연과 마지막 연의 끝마무리 반복은 시 전체를 집중·통일시킴으로써 보다 명료한 이미지를 획득하게 한다.[20]

이용악이 겪은 아버지의 비극적 죽음은 유랑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쳐 다른 여러 작품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위에 살펴본 시외에도 <다리 우에서>, <푸른 한나절>, <달 있는 제사> 등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제삿날의 슬픔이 담겨 있다.

---

20) 방연정, 「1930년대 후반 시의 표현방법과 구조적 특성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논문, 2000, 79쪽.

해당화 정답게 핀 바닷가
너의 무덤 작은 무덤 앞에 머리 숙이고
숙아
쉽사리 돌아서지 못하는 마음에
검은 구름이 모혀든다

네애비 흘러간 뒤
소식 없던 나날이 무거웠다
너를 두고 네어미 도망한 밤
흐린 하늘은 죄로운 꿈을 머금었고
숙아
너를 보듬고 새우던 새벽
매운 바람이 어설궂게 회오리쳤다

-(중 략)-

네 슬픔을 깨닫기도 전에 흙으로 갔다
별이 뒤를 딸우지않어 슬푸고나
그러나 숙아
항구에서 피말려간다는
어미소식을 몰으고 갔음이 좋다
아편에 부어 온 애비 얼골을
보지 않고 갔음이 다행ㅎ다

-<검은 구름이 모혀든다>부분-

'조카의 무덤에서'라는 부제가 제시되어 있는 위 시는 <풀버렛소리 가득차 잇섯다>와 같이 가족 공동체의 상실을 그리고 있다. '숙이'라는 어린 조카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 당시의 일제 현실을 참담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해당화 정답게 핀 바닷가”에 있는 무덤에서 화자는 숙이의 죽음을 생각하며 마음 속에 “검은 구름이 모혀든다”고 말한다. 숙이의 아버지는 유랑의 길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어머니는 숙이를 두고 밤에 도망하여 떠나고 말았다. 이러한 가족의 흩어짐은 꿈 많은 어린 소녀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상황까지 만들어낸다. 그러나 화자는 차라리 어미와 아비의 소식을 모르고 간 숙이의 죽음이 다행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유랑 생활에 실패하고 돌아온 어미와 아비의 소식이 숙이의 죽음을 더욱 비극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항구에서 피말러간다는/ 어미소식을 몰으고 갔음이 좋다”, “아편에 부어온 애비 얼굴을/ 보지 않고 갔음이 다행타”라는 구절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매음녀가 된 어미와 아편중독자가 되어 돌아온 아비의 소식은 당시 유랑을 떠난 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이 시는 이용악이 유랑 중에 겪은 조카 ‘숙이’의 죽음을 소재로 하면서 외부 상황의 참담함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이용악은 유랑 현실 속에서 아버지와 조카의 죽음을 보았고, 또 동무를 땅에 묻으면서 유랑생활에 지쳐 가는 자신을 형상화한다.

산을 허물어
바위를 쓰더 길을 내고
길을 쌀아 집터를 닥는다
쓸어 지는 동무
피투성이 된 頭蓋骨을 건치에 싸서
눈물 업시 무더야한다

-(중　　략)-

어제와 갓흔 필림을 풀러
오늘도 어제아 갓흔 이길을 걸어가는
倦怠-

짜작돌을 쓸어너흔듯 흐리터분한 머리에
새벽은 한업시 스산하고
가슴엔 무륵 무륵 자라나는 불만

-<오늘도 이길을>부분-

한결 해말숙한 네 이마에
촌스런 시름이 피여 올으고
그래도
우리를 실은
차는 남으로 남으로만 달린다

촌과 나루와 거리를
벌판을 숲을 몇이나 지나 왔음이냐
눈에 묻힌 이 고개엔
가마귀도 없나보다

보리밭 없고
흘으는 떼ㅅ노래라곤
더욱 못들을 곳을 향해
암팡스럽게 길 떠난
너도 물새 나도 물새
나의사람아 너는 울고싶고나

-<그래도 남으로만 달린다> 부분-

<오늘도 이길을>은 유랑에 대한 화자의 권태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시로 뚜렷한 목적지 없이 반복되는 생활을 말하고 있다. 이 시는 다른 시와 달리 자신의 감정 토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시로 "가슴에 무륵무륵 자라나는 불만"이 화자를 지치게 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유랑 생활 중에 화자는 산을

허물고 바위를 뜯어 집터를 닦아 정상적인 삶을 이루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동무'는 피투성이가 되어 죽음을 맞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담아내고 있다.

<그래도 남으로만 달린다> 역시 유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고달픔을 그리면서 '달리는 차'를 시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남으로만 달리는" 차는 고향이 북쪽이기에 반대 방향으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말한다. 고향을 떠나는 화자는 자신을 '물새'에 비유하면서 정처없이 떠도는 유랑의 삶을 물새에 대응시키고 있다. 목적지 없이 떠나는 화자의 심정은 불안정한 이동이기에 마지막 행에 "나의 사람아 울고 싶고나"라며 직접적인 감정을 토로한다. 이렇게 이 시는 유랑 생활을 해야 하는 자신의 삶을 말하면서 '달리는 차'라는 공간에서 외부의 암울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용악은 이렇게 유랑 중에 가족을 잃고, 고향을 상실한 체험을 국경 지방 특유의 북방 시어를 통해 드러낸다. 객관적 어조로 감정을 절제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고, 직접적인 감정을 토로하기도 하면서 그는 외부의 참담한 상황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이겨내 보려는 노력보다는 지속되는 유랑 생활에 고달파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백석과 이용악의 가족 상실과 유랑 체험은 두 시인에게 동일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시적 공간에 그리고 있는 대상과 대응 태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먼저 백석은 이별한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내면의 고독'을 시 속에 표출하는 데 반해 이용악은 가족 친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겪으면서 '외부의 참담함'을 그려낸다. 또한 유랑의 과정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백석은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려는 '낭만'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이용악은 비극적인 유랑 생활에 지쳐가는 '고달픔'을 표현하고 있다.

3. 시대적 현실 인식 보기

유랑의 과정 중에 가족 및 고향 상실이라는 개인의 비극적 체험을 동일하

게 겪은 백석[21]과 이용악[22]은 북방의 모진 추위와 가난의 고통 속에서 힘겨운 삶을 일구어가는 당대 민중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당대 편만해 있던 이러한 비극은 백석과 이용악이 민중의 처절한 삶을 보게 됨으로써 개인의 것으로 머물지 않고 현실로 확대되어 가게 된다.

이들이 목격한 당대 민중의 모습은 식민지 현실의 암울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일제의 수탈을 피해 고향을 등지고 낯선 북방으로 왔지만 민중들의 떠돌이 삶은 외로움과 모진 추위,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백석과 이용악은 이러한 비극적 민중의 삶을 바라보며 당대 식민지 상황을 직시했고, 이를 시 속에 담아내는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민중의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두 시인이 그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는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백석이 객관적 서술로 당대 민중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소극적 태도의 접근을 드러내는데 반해, 이용악은 주관적 감정을 실어 유이민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적극적 현실인식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1) 소극적 자긍 - 백 석

백석은 당대 삶의 중심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민중들을 유랑 생활 중에

---

21) 가족과 고향과의 유대에서 떨어져 나와 외로이 헤매는 백석은 자신을 한 마리 소에 비유하고 있다. 宿命의 가혹한 힘 앞에 자기를 내맡기고 諦念하는 그는 그러나 岩壁에 외로이 서서 눈을 맞고 있는 갈매나무처럼 굳세고 깨끗하게 살 것을 각오한다.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대출판부, 1986, 195쪽.)

22) 이용악은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 복지를 전전하며 자라났고, 당대의 가난과 방랑을 몸소 체험했으며 일본 상지대학 재학시, 방학 때면 으레 고향에 돌아와서 만주, 간도 등을 여행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민중에 대한 강한 연대감을 나타내는 시를 쓰고 있다. 그의 민중연대성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체험에서 우러난 것이므로 그의 시가 진지한 울림과 같은 깊은 감명을 주는 것이다. (최종금, 앞의 논문, 115쪽.)

보았고, 이들의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과 그 현실을 시 속에 구체적으로 담아낸다.

백석의 시에 있어 당대 민중 현실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들은 주로 시적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며 제시되어 있고 이를 보는 화자, 시적 주체의 감정은 이면에 감추고 있다. 이는 다양한 인물형상을 작품 속에 시적 대상으로 삼으며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계집아이, 촌 아이, 여승, 더꺼머리 총각, 처녀, 애기무당, 할머니, 할아버지, 물지게꾼 등의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당시의 암울한 현실 속에 고단한 삶을 살아간 민중들을 객관적인 서술방식으로 그려내고 있다.

차디찬 아침인데
妙香山行 乘合自動車는 텅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옛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손잔등이 밭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계집아이는 慈城으로 간다고 하는데
慈城은 예서 三百五十里 묘향산 百五十里
妙香山 어디메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새하얗게 얼은 自動車 유리창 밖에
內地人 駐在所長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임을 낸다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텅 비인 車 안 한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계집아이는 몇해고 內地人 駐在所長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개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八 院 >전문-

이 시의 화자가 그리고 있는 시적 대상은 “계집아이”로 “묘향산행 승합자동차” 안과 밖을 배경으로 그려가고 있다. 북방의 찬 기운을 느끼게 하는 “차디찬 아침”으로 시작되는 서두는 화자가 그려내는 계집아이의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었지만 “손잔등이 밭고랑처럼” 터져 아이의 생활이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짐작하게 한다. 일본인 주재소장으로 보이는 어른의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개”를 했던 계집 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말한다. 압축된 서술 속에 화자는 계집아이의 고단했던 과거와 “묘향산 어디메서 삼촌이 산다”고 하지만 평탄치 못할 앞으로의 삶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텅빈 승합자동차의 황량한 공간 속에 만난 계집아이는 두려움으로 울음을 터뜨리고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고 표현한다. 이 때 “어느 한 사람”은 시적 화자, 즉 백석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객관화하여 등장인물의 하나로 형상화해 주관적 감정을 절제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지나친 감정이 노출된 것으로 지적받기도 하나 이 시는 무엇보다 당시 우리 민족의 민중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계집아이”의 삶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주체인 화자를 이면으로 숨기고 시적 대상을 분명히 드러내어 객관적 서술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女僧은 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넷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平安道의 어늬 山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섶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山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山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女 僧>전문-

이 시는 가족 상실의 아픔을 겪은 한 '여승'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비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 역시 시적 대상인 '여승'의 구체적 삶을 드러내면서 주체인 화자의 감정은 이면에 숨기려 노력한다. 여인의 남편은 "섶벌같이 나아가" 십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을 찾아 금점판을 헤매며 여인은 옥수수를 팔았다. 그러나 남편은 찾을 수 없었고 어린 딸마저 돌무덤에 묻어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여인의 기구한 운명은 결국 '여승'으로서의 삶을 택하며 눈물을 떨구어야 했다.

이 시는 이러한 여인의 질곡 많은 삶을 순차적으로 다루지 않고 현실과 과거 회상을 겹쳐가며 전개해 비극적 과정을 더욱 부각시킨다. 시간의 전개는 2연에서 시작하여 3연, 4연으로 이어져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상황을 보여준다. 마지막 1연은 여승이 된 여인과 화자가 만나는 장면으로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는 구절에서 화자의 감정이 노출된다. 이는 현실 속에 좌절한 여인의 삶 자체가 서러움의 과정이었음을 말해주어 현실에 대한 고통과 절망감을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여인이 살아온 삶은 화자가 본 어느 한 개인의 삶에 국한되지 않고 당시 유랑민의 삶을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시대적 질곡의 현장은 가족 공동체의 파괴를 가져왔고, 민중들은 현실에 대한 절망으로 인해 혹독한 유랑의 삶을 살아가야 했음을 알 수 있다.

백석은 이렇게 유이민들의 삶을 형상화하며 당대 현실을 드러내기도 했지

만 오랜 유랑 생활과 외로움으로 탄식하는 자아의 모습을 통해 현실을 보여준다. 극도의 상실된 세계 속에서 백석은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가기 보다는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정서를 노출하는 모습 또한 드러낸다. 이는 단순히 현실 체념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자기 성찰을 통해 시대적 아픔을 견뎌가려는 의지의 단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아와 현실의 갈등으로 인해 현실을 부정하려는 작품도 있지만 백석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지탱해 가려는 자긍의 태도가 후기시에 더욱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어 燒酒를 마신다
燒酒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속에 고조곤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것이 아니다
세상같은 것은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데서 흰당나귀는 오늘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부분-

이 시는 '눈'과 '나타샤', 그리고 '흰 당나귀'가 어울려 환상적인 이미지를 그려내면서 시 전반의 정황이 낭만성과 비현실성을 지니고 있다. 이상향 속의 여인 '나타샤'를 기다리면서 "소주를 마시는" 화자는 현실에 대한 고뇌에 빠져 있다. 나타샤와의 사랑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 화자는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가 마가리에 살자"고 말한다. 그리고 이 '마가리', 즉 오막살이로 가기 위해 눈 이미지에 어울리는 '흰 당나귀'를 타자고 말한다. 흰 당나귀 역시 비현실적인 매개체로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눈', '나타샤', '흰 당나귀'는 같은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백석 시에서 드물게 보이는 순수 서정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현실 인식 태도는 3연에 나타나 있는데, 산골로 가는 이유는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라고 화자는 말한다. 시적 화자가 처해있는 현실이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시게 하는 고뇌의 공간이었기에 이를 부정하고 떠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화자는 현실에 대응하는 치열함보다는 이를 도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성격은 백석 자신의 소극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 공간을 추구하는 인간의 단면을 백석은 아름답게 형상화하고 있어 그 시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木手네 집 헌 샅을 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디두 않구 자리에 누어서,
머리에 손깎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쌔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에 꽉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 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턴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 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줏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꿀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 섶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어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南新義州 柳洞 朴時逢方>전문-

이 시 역시 백석의 현실 인식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시로 유랑 생활 중의 참담함과 그 과정 속에 터득한 인생관을 보여주는 마지막 발표작이다. 이 시의 화자는 아내와 집, 부모와 동생을 잃고 떠나와 있다.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 유랑의 힘겨움은 추운 북방의 기운과 어울려 화자의 고독한 생활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화자는 '박시봉'이라는 목수의 집에 세들어 밖에 나가지도 않고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째김질'하기 시작한다. 화자는 자신의 슬픔과 어리석음을 뒤돌아보며 부끄러워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까지 이르는 자포자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20행에 시작되는 '그러나'라는 시어부터 시적 전환을 이루면서 탄식과 자책의 방향을 바꾼다. "이 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라는 구절은 고달픈 유랑 생활의 과거를 지배해 온 다른 힘이 있음을 깨달았음을 의미한다. 화자의 의지를 넘어선 "더 크고 높은 것"이라는 힘이 있어 가족과 고향을 상실하고 참담한 삶을 살아가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시적 화자는 자신의 의지를 넘어선 그 힘을 수용하며 이를 새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성찰을 시작한다. 바로 바위 옆에 외로이 서서 하얀 눈을 맞고 있는 '갈매나무'를 화자는 떠올리는 것이다. 굳고 정하게 서 있는 '갈매나무'는 화자의 정신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매체로 현실에 대한 시인의 인식을 보여준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현실에 대한 소극적 인식을 보여주나 결미 부분에서는 현실에 대한 정신적 의지가 자긍(自矜)의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화자는 적극적으로 현실에 대응해 가지는 않지만 시련과 고독 속에서도 굳고 정한 모습의 갈매나무처럼 현실을 지탱해가고자 하는 의지적인 면을 보

이고 있다. 이는 가혹한 현실에 쉽게 굴복하지도 도피하지도 않으며 꿋꿋하게 외로이 서서 자신의 의지를 지켜 가리라는 다짐인 것이다.

이렇게 백석의 시는 비극적인 식민지 현실로 인한 당대 민중의 처참한 삶과 자신의 현실 인식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시적 화자는 주로 관찰자적 시선으로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백석 자신의 감정이 한 구절 정도 노출되는 양상을 보인다. 백석은 당대 식민지 현실의 부정적 공간을 인식하고 괴로워하면서 도피적인 태도로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낭만적 추구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백석은 단순히 소극적인 모습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의 결연한 정신적 의지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자긍의 태도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2) 적극적 현실인식 - 이용악

이용악의 시 역시 유랑 생활 중에 본 민중들의 비극적인 삶을 작품 속에 형상화하며 시대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백석이 관찰자적 서술과 부분적 감정 노출로 민중 현실을 보여준데 비해 이용악은 객관적 태도도 드러나나 구체적인 자신의 감정을 다수 시에 담아내고 있다. 또한 현실을 인식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백석의 시가 소극적인 자긍의 의지를 밝힌 데 비해 이용악의 시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당대 현실의 참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용악은 백석과 동일한 현실인 유이민의 비극을 작품 속에 그리면서 가족과 고향을 잃고 떠나는 심정을 담고 그에 대한 역사의식까지 함께 형상화하고 있다.

국제철교를 넘나드는 武裝列車가
너의 흘음을 타고 하눌을 깰 듯 고동을 놉흘때

언덕에 자리 잡은 砲台가 호령을 내려
너의 흘음에 선지피를 흘릴때
너는 焦燥에
너는 恐怖에
너는 부질업는 전율박게
가져본 다른 동작이 업고
너의 꿈은 꿈을 이어 흘은다

네가 흘러온
흘러온 山峽에 무슨 자랑이 잇섯드냐
흘러 가는 바다에 무슨 榮光이 잇스랴
이 은혜롭지못한 꿈의 饗宴을
傳統을 이어 남기려는가
江아
天痴의 江아

너를 건너
키 넘는 풀속을 들쥐처럼 기어
색달은 국경을 넘고저 숨어 단이는 무리
맥풀린 백성의 사투리의 鄕閭를 아는가
더욱 돌아오는 실망을
墓標를 걸머진듯한 이 실망을 아느냐

江岸에 무수한 해골이 딩굴러도
해마다 季節마다 더해도
오즉 너의 꿈만 아름다운 듯 고집하는
江아
天痴의 江아

-<天痴의 江아>부분-

이 시의 화자는 “냉정한 듯 차게 흐르는” 강을 향하여 “천치의 강”이라고 절규한다. 강을 ‘너’로 의인화하여 부르며 화자가 ‘천치’라 부르짖는 까닭은 민중의 절망적인 현실에 아무런 동요도 없이 묵묵히 흐르고만 있는 것에 연유한다. 강이 흘러온 산협과 바다에 “무슨 자랑”, “무슨 영광”이 있어 전통만 도도히 흐르느냐고 화자는 묻는다. 그리고는 강을 건너 황폐한 고향의 터전을 떠나는 “숨어 다니는 무리”, “맥풀린 백성”들의 한숨과 실망을 아느냐고 화자는 절규한다.

무장열차가 고동소리를 높일 때도, 포태(砲台)가 발포되어 선지피가 흐르는데도 강은 초조와 공포, 부질없는 전율만을 보일 뿐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는다. 유랑민들이 죽어 “강안에 무수한 해골이 딩굴어도” 강은 오직 자신의 꿈만 아름다운 듯 ‘천치’처럼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에서 화자가 절규하는 강은 무기력하고 도도하게 흘러가기만 하는 우리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천치의 강”이라며 부르짖는 화자의 인식 속에는 ‘역사’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도도하게 흐르는 강의 이미지를 통해 유이민의 비극적 현실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며 독자로 하여금 당시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천치의 강>에서 보인 절망은 다음 시집 『낡은 집』에 수록된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에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나는 죄인처럼 수그리고
나는 코끼리처럼 말이 없다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너의 언덕을 달리는 찻간에
조고마한 자랑도 자유도 없이 앉았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다만
너의 가슴은 얼었으리라
그러나
나는 안다
다른 한줄 너의 흐름이 쉬지 않고
바다로 가야할 곳으로 흘러내리고 있음을

지금
차는 차대로 달리고
바람이 이리처럼 날뛰는 강건너 벌판엔
나의 젊은 넋이
무엇인가 기대리는 듯 얼어붙은 듯 섰으니
욕된 운명은 밤 우에 밤을 마련할 뿐

잠들지 말라 우리의 강아
오늘밤도
너의 가슴을 밟는 뭇 슬픔이 목마르고
얼음길은 거츨다 길은 멀다

길이 마음의 눈을 덮어줄
검은 날개는 없느냐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북간도로 간다는 강원도치와 마조 앉은
나는 울줄을 몰라 외롭다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전문-

<천치의 강아>에서와 같이 '강'을 '너'로 의인화하여 부르짖고 있는 화자는 강에 대해 비정함과 야유가 아닌 '강'의 심층까지 이해하는 태도와 당부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

“죄인처럼 수그리고” “코끼리처럼 말이 없는” 화자는 고향의 터전을 떠나는 데 대한 자책과 자괴감에 빠져 있다.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화자는 도피자의 심정이며 “조고마한 자랑도 자유도“ 없는 막막한 심정이다. 그러나 유랑의 처지에서 강을 바라보며 강은 무심한 듯 흐르고 있지만 분명 ”너의 가슴은 얼었으리라“고 말한다. 이는 <천치의 강아>에서와는 사뭇 다른 태도로 강의 심층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암울한 식민지의 현실 속에서 이 시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강’으로 대변되는 ‘역사’가 지금은 단절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회복되리라는 신념과 의지이다.

<천치의 강아>에서와 동일하게 ‘강’은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시적 화자의 태도는 보다 적극적인 현실 인식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강 표면은 단절된 역사로 인해 얼어있다 해도 ”다른 한 줄 너의 흐름이 쉬지 않고“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있음을 화자는 인식한다. 강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곳이 ‘바다’라면 얼어있는 상황 속에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물줄기로 인해 소망의 여지가 있다는 시인의 믿음이 담긴 표현일 것이다.

시적 화자는 “욕된 운명은 밤 위에 밤을 마련할 뿐”인 암울한 현실을 말하면서도 ‘강’을 향하여 당부의 목소리를 높인다. “잠들지 마라 우리의 강아”라고 외치며 비록 자신은 황폐한 고향을 떠나는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역사’만은 끊이지 않아 머지않아 바로 잡히길 화자는 소망한다. 회복에 대한 의지를 말하면서도 화자는 두만강을 바라보며 자책과 탄식을 놓지 못한다. 유랑의 길 위에서 “마음의 눈을 덮어줄/ 검은 날개”를 찾는 모습은 이를 잘 드러내주는 표현으로 마지막 행에 “나는 울 줄을 몰라 외롭다”라는 구절 또한 유랑민의 심경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천치의 강아>와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두 작품 모두 이렇듯 이용악의 역사의식을 담고 있어 의미 있는 작품으로 주목된다. 유랑을 떠나는 민중들은 가난과 추위로 피폐해진 모습이었고 죽음의 비극까지 도사리는 결코 평탄치 못한 길이었다. 두 작품에 나타난 ‘추운 북방의 겨울’이라는 배경은 얼어있는 ‘강’과 어울려 그 의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즉 ‘얼어있는 강’

은 식민지 조선의 단절되고 왜곡되어 있는 '역사'를 말하고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시인 이용악의 신념과 의지가 작품 속에 반영되어 적극적인 현실 인식 태도를 보여준다.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흠에 살았다는 우리의 머언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뒤ㅅ모양이 머리태를 드리인 오랑캐의 뒤ㅅ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새 없이 갔단다
도래샘도 띠집도 버리고 강건너로 쫓겨 갔단다
고려 장군님 무지 무지 처 드러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 갔단다

구름이 모혀 골짝 골짝을 구름이 흘러
백년이 몇 백년이 뒤를 니어 흘러 갔나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않었건만
오랑캐꽃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몰으는 오랑캐꽃
두 팔로 해ㅅ빛을 막아줄게
울어보렴 목놓아 울어나보렴 오랑캐꽃

-<오랑캐꽃>전문-

이 시는 '오랑캐꽃 명칭의 유래'를 부제로 설명하면서 독특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우리 민족을 드러내고 있다. 시적 화자는 '오랑캐'와 '오랑캐꽃'의 입장에서 서술하면서 대립적인 관계를 미묘하게 배치하고 있다. 먼저 1연의 '오랑캐'는 우리 민족을 넘보던 적대적 의미를 지닌 북방의 오랑캐를 의미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고려 장군님'에 의해 "아낙도 우두머리도 돌볼새 없

이" 강 건너로 쫓겨갔던 여진족을 말하는 것으로 고려의 입장보다는 쫓기는 자, 오랑캐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랑캐 여진족은 고려를 침략한 데 대한 마땅한 응징으로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2연은 고려가 아닌 식민지 현실로 상황이 달라졌음을 설명하기 위해 "몇 백년이 뒤를 니어 흘러 갔나"라고 배경을 설정한다. 다음 3연이 이 시의 중심 의미를 이루는데, '너'로 시작되는 의인화된 표현은 오랑캐가 아닌 '오랑캐꽃'을 의미한다. 누군가를 침략하여 적대시되는 오랑캐에게 "피 한방울 받지 않았건만" 억울하게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우리 민족 또한 일제 침략 하에 억울하게 식민지 현실에 놓여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1연에서 '고려 장군님'이라고 표현되던 기상은 사라지고 우리 민족은 일제에 의해 아무런 죄도 없이 '쫓기는 자'의 신세가 되었음을 화자는 오랑캐꽃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즉 1연에서는 '고려 장군님'과 '오랑캐', 3연에서는 '오랑캐꽃'과 '일제'가 각각 대립 관계를 이루어 그 의미를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일제하 우리 민족이 황폐한 고향으로부터 쫓겨 유랑을 떠나는 현실을 이용악은 '오랑캐꽃'을 '우리 민족'에 대응시켜 나타내고 있다. "울어보렴 목놓아 울어나보렴 오랑캐꽃"이라고 표현된 마지막 행은 민족의 현실에 대한 서러움을 집약하고 있는 것으로 비극적 정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손톱을 물어 뜻다도 살그만히 눈을 감는
제비갓흔 少女야
少女야
눈 감은 양볼에 울ㅅ정이 돗친다
그럴때마다 네 머리에 떠돌
悲劇의 群像을 알고십다

지금 오가는 네 마음이
濁流에 흡살리는 江가를 헤매는가

비새는 토막에 누덕이를 쓰고 안젓나
쭝쿠레 안젓나

감앗던 두 눈을 써
입술로 가져가는 유리잔
그 풀은 잔에 술이 들엇슴을 기억하는가
부푸러올을 손ㅅ등을 엇지려나
윤쌀 나는 머리칼에
엇갈리는 哀愁

胡人의 말모리 고함
놈나저 지나는 말모리 고함—
뼈자린 채ㅅ죽 소리
젓가슴을 감어 치는가
너의 노래가 漁夫의 자장가처럼 애조롭다
너는 어느 凶作村이 보낸 어린 犧牲者냐

깁허가는 大陸의 밤—
未久에 먼동은 트려니 햇살이 피려니
성가스런 鄕愁를 버리자
제비갓흔 少女야
少女야……

-<제비갓흔 少女야>부분-

이 시는 '강 건너 주막에서'라는 부제가 붙은 시로 '호인(胡人)'들이 사는 오랑캐 땅에서 어린 나이에 술집으로 팔려온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실제 이 당시 여인들의 삶은 가장 비극적인 삶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비록 걸인은 아니었지만 성(性)을 팔아 생계를 잇는다는 것은 비극적이었으며 정신적으로 훼손당하는 유이민의 삶이었던 것이다.[23]

화자가 주막에서 만난 어린 소녀는 양볼에 울음을 감추고 있고, 머리 속에는 고향에서 보낸 비극적인 나날들을 지니고 있는 듯 표현되어 있다. 고향을 떠나 오랑캐 땅까지 왔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비 새는 토막에 누더기를 쓰고” 쭈그리고 앉은 형상이었다. 가난은 먼 이역 땅에서도 계속되었고, 어린 소녀는 술잔을 들며 ‘엇갈리는 애수(哀愁)’에 빠진다. 황폐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도 살아갈 방법은 없는데도 소녀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암울한 현실이 빚어낸 ‘어린 희생자’에게 화자는 언젠가 “미구에 먼동은 트려니 햇살이 피려니/ 성가스런 향수”는 버리고 다가올 날을 바라보자고 말한다. 이용악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향에 대한 갈등을 이 작품 속에서도 나타내면서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견뎌내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 오랑캐 땅에서 만난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전달하되 관찰자적 시선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어 현실의 구체적 상황을 보이고 있다.

알룩조개에 입마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뿐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골
가시내야
나는 밭을 얼구며
무쇠다리를 건너 온 함경도 사내
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전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밑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
어디서 휴참한 기별이 뛰어들것만 같해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믿어운 북간도 술막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내야
너의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23) 이정숙, 『실향소설 연구』, 한샘출판사, 1989, 220쪽.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히 잠겨다오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달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철리 철리 또 철리 산마다 불탔을 겐데
그래두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두 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
불술기 구름속을 달리는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절라도 가시내>부분-

이 작품 역시 '함경도 사내'가 만난 '전라도 가시내'에 관한 이야기로 당대 현실 속에서 비극적 삶을 살아간 민중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앞서 살핀 <제비 갓흔 소녀야>에서와 유사하게 '전라도 가시내'는 북간도 술막에서 접대부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시적 화자와 만나 떠나온 고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시적 화자 '나'는 함경도 사내로 "바람소리도 호개도" 무섭지 않을 만큼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시적 화자 역시 먼 타향에서의 생활 속에서 "시름을 달게" 마셔야 했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미더운" 안타까운 현실적 공간이었다. 3연부터는 '전라도 가시내'가 고향을 떠나오게 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석 달 전' 두만강을 건너와 술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슴 그늘진 숲속"에는 "가난한 이야기"로 가득차 있었고 고향을 떠나올 때 산마다 단풍이 들어 치마폭으로 눈물을 가렸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시적 화자 '나'는 '전라도 가시내'와 고향을 그리는 데 있어 동료의식을 느끼고 서로를 달래며 향수에 젖는다. "때아닌 봄"을 불러주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라고 말하는 '나'는 유랑민의 비극적 현실 상황을 애틋하게 그려낸다. 고향을 떠나와도 참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당대의 현실을 민중의 구체적 삶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선영은 이 시의 화자가 전라도 가시내의 이야기에 적극적인 감정적 개입을 행하면서도 그녀의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객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한다. 이는 시적 화자에게 중요한 것이 전라도 가시내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 가시내를 둘러싼 현실 자체에 대하여 분노하고 대결해 나가는 화자 자신의 태도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24]

이렇게 이용악의 시는 당시 민중의 현실과 자신의 구체적 삶의 현장을 담아내면서 시대적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비극적인 정황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면서 주관적인 감정도 함께 싣고 있는 그의 작품은 현실의 비극성을 고조시켜 보여 준다. 이를 통해 현재의 암울한 상황이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는 역사 의식까지 작품 속에 담아내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현실을 인식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백석과 이용악의 시대적 현실 인식은 두 시인 모두 민중들의 비극적 유랑을 바라보며 나타났지만 그 현실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백석의 시는 민중들의 비극적 삶을 관찰자적 시선으로 드러내면서 그에 대한 감정을 부분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그는 비참한 현실을 벗어난 낭만적 세계를 희구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정신적 의지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자긍'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에 반해 이용악의 시는 민중들의 보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다루면서 주관적인 감정을 실어 표현하고 있다. 그는 현실의 암담함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식민지 상황이 곧 회복될 것이라는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 현실인식'을 보여주었다.

Ⅳ. 결 론

24) 오선영, 「이용악 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1, 50쪽.

이제까지 본고는 1930년대 후반과 해방전후에 주된 활동을 전개했던 백석과 이용악 두 시인을 비교 연구해 보았다. 이들은 문학사에서 월남북 및 재북 시인이라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고 그 후에야 몇몇의 연구가 이뤄졌다. 이 시인들을 연구하는 것은 일제 말기 북방의 현실이 시 속에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백석과 이용악은 1935년 동일한 시기에 등단하는 등 여러 가지 공통점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각각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백석과 이용악은 북방의 고향을 대상으로 자신의 시적 정서를 탁월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 속에 드러나는 고향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백석은 중류층으로 추정되는 가정에서 자라나 유년기의 토속적인 산골 마을을 화합의 공간으로 그려낸다. 끈끈한 유대감이 살아있는 우리 민족의 원형적 모습을 제시하면서 농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백석은 민담과 전설의 속신(俗信)을 시 속에 담아낸다. 비록 식민지 조선이라는 비극적 현실이 배경이 되고 있었지만 백석은 농촌 공동체의 전형을 담아내면서 자신의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비해 타지를 전전하며 소금 밀무역을 하던 부모를 둔 이용악은 지독한 가난과 고통스런 체험을 시 속에 담고 있다. 그는 가난으로 황폐화된 고향으로 인해 슬퍼하며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난다. 백석과 달리 과거가 아닌 현실 자체에 눈을 두고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그리면서 그는 식민지의 비극적 상황을 보여준다.

1930년대 후반의 사회 모습은 일제의 강압 정책이 심해져 극심한 수탈과 가난에 못 이겨 고향을 떠나 만주, 연해주 등지로 떠나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백석과 이용악 역시 고향을 떠나 북방의 곳곳을 유랑하는 생활을 계속했다. 그러기에 두 시인의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은 작품 곳곳에 드러난다. 그러나 동일한 가족 상실과 유랑 체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시 속에 그려낸 대상과 그 대응 태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백석은 가족과 이별하고 타관에서 내면의 '고독'을 시 속에 그려낸다. 고향

을 상실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며 백석은 외로움을 드러낸다. 그는 내면의 고독을 위로하기 위해 낭만적인 고고함 또한 보여준다. 즉 백석은 고통스러운 유랑 생활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면서 운명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비해 이용악은 유랑 체험 중 타향에서의 비극적인 죽음을 여러 번 경험한다. 그러기에 유랑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고단함이 짙게 배어 나온다. 무엇보다 타관에서 최후를 맞은 아버지의 객사가 큰 슬픔으로 다가와 이를 그려낸 작품들이 많다. 조카나 친구의 죽음 역시 같은 비극적 상황 속에 일어났고 점차 유랑 생활에 지쳐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용악은 백석과 달리 낭만보다는 현실적 유랑의 '고달픔'을 주로 드러낸다.

백석과 이용악은 이렇게 동일한 유랑 생활 중에 개인의 비극적 체험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그 과정에서 고향을 등지고 떠나와 사는 민중들의 삶을 보게 된다. 이는 두 시인의 시대적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다 확대된 시각으로 작품을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유이민의 비극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백석과 이용악이 현실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태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백석은 식민지 현실에 처한 민중의 삶을 관찰자적 시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작품 속 한 구절 정도 감정을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또한 스스로를 객관화시켜 표현하였다. 유랑 생활을 운명으로 수용했던 그는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준다. 당시의 시대적 아픔에는 자기 성찰을 통해 견뎌가려는 의지를 자긍(自矜)의 태도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이용악은 유이민의 비극적 현실을 동일하게 드러내되 백석과는 달리 적극적 역사 의식을 통해 우리 민족이 회복될 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를 드러낸다. 또한 백석과 달리 관찰자적 시선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함께 드러내어 현실의 상황을 확연히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는 당대 유이민들의 와해된 삶의 현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려는 그의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본고는 백석과 이용악의 시에 나타난 고향 정서와 유랑 체험 및 현실 인식

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두 시인의 비교로 1930년대 후반기와 해방전후에 북방의 민중들의 정서와 삶의 태도를 미루어 알 수 있다. 백석과 이용악은 북방의 추운 기운과 결합하기에 충분했던 혹독한 식민지 현실 속에서 토속적 정서를 토대로 고향의 풍요로운 원형성과 현실의 비극성을 표현했다. 또한 가족 상실과 유랑 체험을 통해 시속에 고독을 담아냈으며 개인적 비극에 머물지 않고 민중의 삶으로 확대한다. 이에 기초한 현실 인식의 태도는 소극적인 면모와 적극적 태도라는 서로 상반되는 모습으로 작품 속에 나타난다.

미흡한 글을 통해 두 시인의 고향 정서를 바탕으로 그 상실과 현실 인식을 비교해 보았다.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비교연구가 부족하기에 앞으로 더 많은 논고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김재용 편(1997), 『백석전집』, 실천문학사.
백 석(1936), 『사슴』, 선광인쇄주식회사.
이용악(1937), 『분수령』, 동경, 삼문사.
———(1938), 『낡은 집』, 동경, 삼문사.
———(1947), 『오랑캐꽃』, 아문각.
———(1949), 『이용악집』, 동지사.
윤영천(1995), 『이용악시전집』, 창작과 비평사.

<단 행 본>
감태준, 『이용악 시연구』, 문학세계사, 1991.
강만길, 『한국 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4.
고형진 편, 『백 석』, 새 미, 1996.
류철균 역, 김용직 편, 『상징』, 문학과 지성사, 1988.
박용식, 『한국설화의 원시가교사상연구』, 일지사, 1987.
윤영천, 『한국의 유민시』, 실천문학사, 1987.
이동순, 『백석시전집』, 창작사, 1987.
이정숙, 『실향소설 연구』, 한샘출판사. 1989.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고대출판부, 1986.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 출판사, 1983.

<논 문>
감태준, 「이용악 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0.
강순기, 「이용악· 백석 비교연구: 통사구조를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강지영, 「1930년대 후반기 현실주의 시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고형진, 「백석시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3.
김기림, 「'사슴'을 안고」, 『조선일보』, 1936.
김동근, 「1930년대 시의 담론체계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96.
김명인, 「백석시고」, 『우보 전병두박사 화갑기념론총』, 1983.
김병호, 「한국 근대시 연구: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1.
김선희, 「이용악 시의 서사적 특성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1999.

김순옥, 「이용악·백석의 시의식 대비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김재용, 「근대인의 고향상실과 유토피아의 염원」, 『백석 전집』, 실천문학사, 1997.
김재홍, 「민족적 삶의 원형성과 운명애의 진실미-백석」, 『한국문학』, 1989. 10.
노 철, 「이용악 시 세계 변모과정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0.
동시영, 「백석 시의 구성과 기법에 관한 기호학적 분석」,『동악어문론집』 36집, 2001. 12.
류순태, 「이용악 시 연구: 구조와 모형화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994.
문호성, 「백석· 이용악 시의 텍스트성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99.
박경수, 「1930년대 시의 현실지향과 저항적 문맥」, 『비교문화연구』 Vol.4, 1991.
박용철, 「백석 시집 사슴평」,『박용철 전집 제2권-평론집』,동광당서점, 1940.
박윤우, 「민족적 삶의 원형성과 리얼리즘의 성취」, 『낡은집』, 미래사, 1991.
박윤우, 「이용악 시의 일상성과 리얼리즘적 창작 방법」,『인문과학연구』 Vol.5, 1998
박철석, 「이용악 시 연구」, 『국어국문학』 Vol.17, 1998.
박혜숙, 「백석시의 엮음구조와 사설시조와의 관계」,『중원인문논총』 Vol.18. 1998.
방연정, 「1930년대 후반 시의 표현 방법과 구조적 특성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논문, 2000.
방연정, 「1930년대 시의 운율적 긴장과 그 특징의 연구」,『한국어문교육』 Vol.9, 2000.
신범순, 「백석의 공동체적 신화와 유랑의 의미」,『한국리얼리즘 시인론』, 태학사, 1990.
오교정, 「이용악 오장환 시에 나타난 고향 이미지의 대비 연구」, 전주대 석사논문. 1992.
오선영, 「이용악 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1.

오세영, 「식민지 문학의 상실의식과 낭만주의· 하」,『현대문학』, 1월호, 1991.
오장환, 「백석론」,『풍림 5호』, 풍림사, 1937.4.
유지현, 「'집'의 공간 시학과 1920-1930년대 시인들의 상실의식 연구」,『한

경대학교 논문집』 제13집, 1999.
윤석우, 「한국 현대 서술시의 담화특성 연구」, 조선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8.
윤여탁, 「1920~30년대 리얼리즘시의 현실인식과 형상화 방법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1990.
윤영천, 「이용악론: 민족시의 전진과 좌절」,『한국 리얼리즘작가연구』, 문학과 지성, 1988.
윤영천, 「일제 강점기 한국 유이민 시의 연구」,『한국의 유민시』,실천문학사, 1987.
윤지관, 「영혼의 노래와 기교의 시- 이용악론」,『세계의 문학』, 1988. 가을호.
이동순, 「민족 시인 백석의 주체적 시정신」, 『백석시전집』, 창작과 비평사, 1987.
이명찬, 「1930년대 후반 현실주의 시의 전개 과정」, 『문학과 논리』1호, 태학사, 1991. 10.
이병학, 「백석 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1.
이수형, 「용악과 용악의 예술에 대하여」, 『이용악집』, 동지사, 1949.
이은봉, 「1930년대 후기시의 현실인식 연구」, 숭실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2.
장영수, 「오장환과 이용악의 비교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7.
장정렬, 「백석과 이용악 시의 공간 연구」, 한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1.
조동민,「상징연구서설」,『논문집』Vol.3, 건국대학교 부설 중원인문연구소,1984.
조명제, 「민족시의 리얼리즘적 전진」,『시문학』, 시문학사, 1989. 2.
최두석,「리얼리즘시론」,『실천문학』겨울 호, 실천문학사, 1991.
최두석, 「민족 현실의 시적 탐구」, 『한국현대 리얼리즘시인론』, 태학사, 1990.
최종금, 「1930년대 한국시의 고향의식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논문, 1998.
한수영, 「백석 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1.
허병두,「백석과 이용악의 시적 상상력 연구」,서강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3.